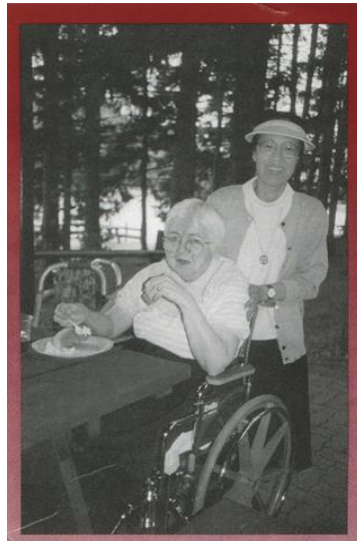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관구 광주 본원에 살고 있는 김명자(Helena) 수녀입니다. 1978년에 입회하여 학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도직에서 회계와 자산관리에 관한 일을 수행해 왔습니다. 미국 가리따스크리스티 간호 봉사 와 고문서실 책임이 다른 분야의 사도직이었지요.

첫 사도직인 강진 성 요셉학교에서의 5년은, 미국선교사 수녀님들의 삶을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기였습니다. 저에게 수녀님들은 늘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었고, 견고하고 지성적인 동반자였습니다. 그 분들은 양성자들을 보물과 같이 귀하게 여기셨고, 학교일정의 여러 바쁨 중에도 성당의 중요 행사에 꼭 참석하시며, “교회의 딸이 되십시오” 하셨던 마더 씨튼의 말씀을 실천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고깃국을 끓여 자전거에 싣고 고아원으로 달려가시던 수녀님! 혼신을



다해 장애 아동들의 교육에 헌신 하시던 수녀님! 나환자촌 가족들을 수녀원에 초대하여 보듬어 주며 함께 했던 수녀원의 따듯했던 식사들...모두 하느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한국 진출 40주년을 맞이한 2000년, 저는 당시 관구장이었던 김승혜 수녀님의 권고로 가리따스크리스티의 간호 봉사를 자원하였습니다. 제가 입회하던 1978년 15명이었던 한국관구 회원이 그 해에는 20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관구가 작은 힘이나마 마음을 내어 미국의 모원에 도움을 드리려는 첫 시도였습니다. 입회 전에 간호사였던 저에게 이 일은

어려운 도전이면서도 또한 기쁨이었습니다. 2000년 4월 27일 그린스버그에 도착하였고, 첫 만남이었던 노자린(Rose Irene Boggs) 수녀님과 함께한 시간은 매우 소중한 기억입니다. 선종하시기까지,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는 병환의 어려움 중에서도 수녀님께서 지니셨던 아름다운 미소, 하느님을 영혼으로 응시하시던 그 깊은 확신은 제 마음 깊이 자리하게 된 하느님 현존의 순간이었습니다. 서투르고 언어 때문에 어려워하는 저를 주변의 수녀님들께서 얼마나 많이 도와 주셨는지요!! 한분 한분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두 번째로 파견되었던(2004,4월-2006년 1월) 어느 성탄 무렵, 한 수녀님께서 넘어져 눈을 다치셔서 잘 보실 수 없게 되자, 어느날 성탄카드를 읽어 달라고 부탁 하셨습니다. 제가 읽으면 제 발음을 수정 해주시며, 보낸 사람과의 인연, 추억, 그리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너에게 성탄에 받은 선물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고 싶다”고 하시며 빠알간 예쁜 바구니를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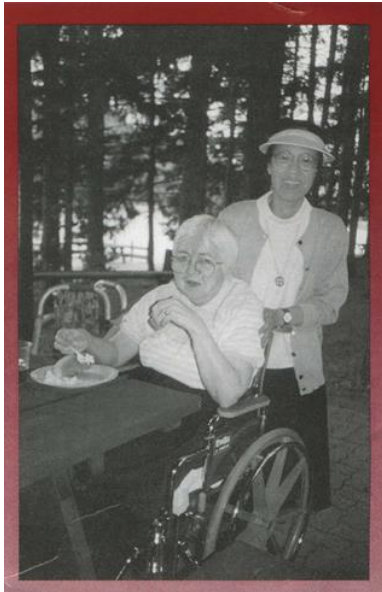
지금도 제 방에 자리하고 있는 바구니에는 담겨있던 아름다운 초코렛 자리에 수녀님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 그리고 그리운 추억이 담겨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제 수도여정을 자비와 충실함으로 동반해 오신 하느님께 감사 드리며, 햇살 가득한 뜰에 서서 생명의 봄을 모든 창조물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Hello! Sisters! My name is Helena Kim (Myoung-Ja) who is living in the Provincial House, Gwngju, Korea. I entered the community in 1978, and worked at schools, and was charged with treasury and property of the Korean province. I also worked at Caritas Christi as a volunteer, and in the archives of the Korean province.

The first five years that I spent at St. Joseph School in Kangjin was a blessing to get to know deeply and live with our first American Sisters in Korea. For me, each Sister was like a mother, and trustworthy

companion. They were very intelligent and warm. Sisters cherished the young sisters in the formation period as a treasure, participated in all the important events of the parish. They gave witness to the people as “the children of the Church” like Mother Seton told her early Sisters. Sisters rode a bike to deliver beef soup to the orphanage, devoted themselves to education for the disabled children, and invited the families of the patients with Hansen’s disease to the convent. All that they did made us feel the grace of God.



work at Caritas Christi was a challenge as well as a blessing to me. On April 27, 2000, I arrived in Greensburg, and the first American Sister whom I met there

In 2000, which marked the 40th anniversary of the foundation of the Korean province, I volunteered to work at Caritas Christi, recommended by Sr. Sung Hae Kim, the provincial at that time. It was a starting point of providing some help to the Mother House by the Korean province. When I entered, the Korean Sisters were just fifteen, however, the numbers increased up to two hundred in 2000. Before entering, I worked as a nurse, and this volunteer

was Sr. Rose Irene Boggs. She and I spent joyful times together, and it still remains in my memory. Through her beautiful smile and her gazing on God she showed to me even when she was dying without eating anything, the experience of God’s presence in my heart. The Sisters at Caritas Christi helped and encouraged me a lot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English, too. Each of them is still in my heart and my memory.



When I was missioned to Caritas Christi for the second time (April 2004 to January 2006) there was a Sister who fell and was injured her eyes so she could not see well. It was at Christmas time. I read the Christmas cards for her, and she corrected my wrong pronunciation of English words, while sharing her life stories, memories, and family events with me. And she gave me a beautiful red basket with chocolates saying, “I want to give you the most beautiful present that you never received before.” I still have the red basket filled with lots of love, gratitude, and memories of so many Sisters instead of chocolates. I am so grateful to God, who always is with me in mercy and faithfulness. I am sharing the joy of life with all the creatures of the earth standing in the backyard of the Convent with sunshine.